

現代小說에 나타난 죽음의 一考察

—「화수분」, 「무녀도」, 「죽음의 한 研究」를 中心으로

沈 永 德

〈目 次〉

- | | |
|--------------------|--------------------|
| I. 서론 | 2. 김동리의 「무녀도」 |
| II. 通過儀禮 | 3. 박상룡의 「죽음의 한 研究」 |
| III. 1. 전영택의 「화수분」 | IV. 결론 |

I. 서론

문학의 대상과 자료를 인간의 생애에서 찾을 때 인간사에 다양하게 얹혀 있는 사랑과 죽음의 문제가 그 중심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양상을 탐구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일 것이다.

문학작업이 궁극적으로 도달코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이해와 조명이라는 20세기 문학은 죽음의 고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세기의 문학세대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죽음의 사실에 반응하는 것¹⁾ 이라고 Lewis가 주장했던 것처럼 죽음의 양식은 작품이라는 독자적 구조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소설은 철학이나 종교, 역사, 신화 등 문학의 先行이 되는 인간의식의 발현인

1)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248면, 재인용

문화와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도 문학 독자의 세계가 있고 다른 예술과 같이 美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미적구조를 가지는 것²⁾이므로 죽음의 문제는 작품 자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은 일차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나 의식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 작가는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가 관찰하고 사색해 온 우주, 선과 악, 존재에 대한 인식양상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작품 속에 투사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그것을 고립과 단절이라는 의식 속에서 맞아 들일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이 아닌 영속성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었던 古代에는 비교적 죽음이 친근하게 받아 들여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대인들은 生과死를 하나의 반복적인 리듬으로 생각하고, 죽음 그 자체를 태초의 그 시간으로의 영원회귀로 받아들인 제의의 많은 實例를 통해서 고대인의 生死觀을 유추할 수 있다고 M.Eliade는 보고 있다.

달은 차고, 기울고, 눈에서 사라지는 천체로서 그 천체의 생은 生成, 탄생, 죽음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른다. 달은 인간과 똑같이 비극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달은 몰락하여 인간의 경우와 같이 죽음으로서 생애를 마치기 때문이다. 3일밤동안 별이 총총한 하늘에는 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죽음 후에는 再生이 뒤따른다. 즉 新月이 되는 것이다.³⁾

E.M. Forster도 《소설의 이해》에서 죽음에 흥미를 갖는 이유와, 인간생활에 있어 출생, 음식, 수면, 애정, 죽음의 다섯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2) R. welbeck, A. warren, 《문학의 이론》, 김병철 譯, 을유문화사. 1982.19면

3) M.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譯, 형성출판사. 1979.172면. 유금호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研究》 21면 재인용.

규정⁴⁾ 하고 있다.

한국 현대소설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그런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자를 꼽을 수 있다면 유금호와 이인복이다. 유금호는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東泉社, 1988.2)에서 죽음의 유형을 상승, 순환, 하강구조로 나누어,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개개인의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생의 일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生死觀을 근거로 하여 심훈, 나도향 등 십여명의 작가를 검토하였다. 이인복은 《죽음과 구원의 문학적 성찰》(성요셉출판사, 1989.6)에서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첫번째는 문학에서 죽음이 논의되어야 할 이유와 동서양의 죽음을, 두번째는 고전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식과 죽음관을, 세번째에는 1920년대 부터 1960년대 까지 시와 소설에서 나타난 죽음의식을 통시적 순차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할 때 죽음과 관련되어지는 작품들은 1930년대 접어들어 그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에는 주로 궁핍의 문제들이나 신분 계층간의 갈등들을 죽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며 반하여 1930년대에는 죽음을 통한 和合이나 生死에 관한 순환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전영택의 《화수분》, 김동리의 《무녀도》,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이다. 이 작품들은 그동안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었지만 여기서는 죽음의 양상에 나타난 순환의식을 통과제의로서의 再生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피고자 한다.

II. 通過儀禮

인간은 그의 죽음을 인식함으로 해서 자신의 한계상황을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영원성을 꿈꾸게 된다. 여기에서 종교가 비롯되며 인간은 신앙 속에서 부활의 믿음

4) E.M.포스터, 《소설의 이해》, 이성호譯, 문예출판사, 1975, 55면

을 갖는다.

그러나 종교적 차원에서의 죽음은 자연인으로서의 죽음과는 다른 관점을 요한다. 기독교, 불교, 아울러 샤머니즘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는 죽음은 모두가 그 죽음을 하나의 수단 혹은 통로로 여긴다. 그 죽음의 목적은 구원이며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자면 구원은 바로 죽는 것에, 그 사멸하는 것에 있는 것⁵⁾이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죽음이란 하나의 통과제의인 것이다. 〈俗〉으로부터 〈聖〉으로, 하루살이와 같은 환각적인데서부터 실재와 영원으로,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인간으로부터 신성으로 옮겨지는 길이다.⁶⁾

소설이 인간의 갈등과 모순을 다루는 구조 속에서 보다 극적인 삶을 창출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죽음을 사이에 둔 소설일수록 바라보는 시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生死觀이 작용한다면 이 때의 죽음은 通過儀禮의 양상이 될 것이다.

통과의례의 용어는 프랑스어 Ceremonie passage 와 영어 rites of passage의 직역이며 프랑스 학자인 반 겐넵이 장소, 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의 변화에 병행되는 의례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적용했다.⁷⁾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또는 특정의 사회적, 우주적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통과에 수반되는 과정에서 전이(transition)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과 의례(rites of passage)를 특별한 범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통과 의례의 특징은 첫째, 종래의 상태로부터의 〈이탈〉 둘째,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그대로의 〈중간상태〉 그리고 세번째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로의 〈통합〉 이상 세 종류의 의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5)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손재준 譯, 삼성출판사, 1976, 239~240면

6) M. 엘리아데, 《우주와 역사》 정진홍 譯 현대사상사, 1976, 35~36면

7) 김동욱 외, 《한국 민속학》 새문사, 1988, 110면.

것이라고 본다.⁸⁾

Ⅲ.

1. 전영택의 「화수분」

전영택은 일생동안 5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작가이다. 그의 작가로서의 기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된다.

제1기: 창조동인의 활동에서 첫 단편집인 《생명의 봄》을 간행하기까지의 기간
(1919~26)

제2기: 창작 활동이 침체되어 있던 기간(1927~45)

제3기: 해방 후부터 작고할 때까지의 기간(1946~68)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화수분」(朝鮮文壇, 1925)은 제 1기에 해당된다.

그의 작품을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보면 전반기는 기독교적 색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후반기는 기독교적 신앙을 작품을 통해 계몽적으로 보여 주거나 사회의 비뚤어진 종교형태를 비판적으로 그려낸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의 신분이 목사적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소설 특히 「화수분」에 기독교적 용어와 색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어려서 배운 한학을 통해서 축척된 것을 그의 자전적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⁹⁾ 그가 목사가 되기를 결심한 것은 1918년 일본유학 때 편입한 청산학원 신학부에 입학하고 나서이다. 이 당시에 일본 문단에 유행중이던 자연주

8) A. 반젠넬, 《통과의례》, 전경수 譯, 을유문화사, 40면

분리 의례(rites of separation)를 <이탈>로, 전이의례(transition rites)를 <중간상태>로, 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를 <통합>으로 표기함.

9) 전영택, 《나의 문학 자서전》, 《자유문학》 1965.5, 140면

의적인 문예사조라든가 톨스토이류의 인도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¹⁰⁾

그 해는 소설이라면 의례히 연애소설로 알고, 정치를 논하고 종교를 이야기하는 일부 학생들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시기였다. 더구나 교회 방면에서는 소설을 쓰는 일을 죄악시하고 소설을 쓰는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 여기는 경향도 있었던만큼 연애소설이 아닌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운동을 일으키려는 명분을 내세운 김동인과 뜻을 같이 하여 <창조>동인이 된다. 전영택은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나 배타적인 기질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주요한, 김동인을 만나는 계기로 인하여 그의 초기의 소설이 기독교보다는 순수문학에 더 가치를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영택이 연애 이야기가 아닌 절실한 인간문제의 제시를 위한 방법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화하려 한 것은 몹시 의욕적인 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가 일본 유학시절이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중견작가였던 國木田獨歩의 「春の鳥」에서 「天療나 天才나」 제작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¹¹⁾

전영택의 소설을 종교생활과 문학생활로 나누어 그 상반관계를 주의깊게 다룬 채훈은 궁핍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자녀에 대한 애정, 이 두 가지가 「화수분」에서처럼 성공적인 이야기로 그려진 예는 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¹²⁾

「화수분」에서 가난의 문제를 다룬 것은 당시의 신경향파 문학의 일반적 특성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죽음의 문제가 대단원에서 제기되는 것도 20년대 전반기 문학의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가 추구한 죽음의 의미는 당시의 팽배했던 의미와는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말 부분에서 어린 생명을 살려놓은 이 것은 새롭게 희망을 찾으려는 작가의 부활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백 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156~160면.

11) 채 훈, 《1920년대 한국작가연구》일지사, 1976, 46면

12) 채 훈, 같은 책, 54면.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을 내려다 보다가 소나무 밑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곳을 곧 달려가 보았다. 가 본즉 그것은 옥분과 그의 어머니다. 나무 밑 눈위에 나무가지를 깔고 어린것 엷은 현누더기를 쓰고 한 끝으로 어린 것을 꼭 안아 가지고 웅크리고 펴고 있다. 화수분은 확 달려 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은 떴으나 말은 못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한다.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밤을 지낸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사가 지나가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겨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깨인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것만 소에 싣고 갔다.¹³⁾

「화수분」의 마지막 장면이다.

의미의 전달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자들은 가난한 인물들의 죽음을 종말로 한 이야기라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부활의 문제는 마지막 문장의 의미 해석에서 풀린다.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화수분과 그 아내의 품 속에서 살아남은 옥분이가 바로 부모들의 再生이라 풀이되며,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죽음관과 일치하게 된다.

기독교 죽음관의 정수는 인간이 그가 지은 罪의 罰로 죽음을 선고 받았으나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降生하여, 인간의 조건으로는 승리적 극복을 감수해 낼 수 없는 고통스런 최악의 죽음을 완전 경험하여 극복함으로써 받은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였고, 그리스도가 그가 죽은 후 3일만에 부활하였듯이 모든 인류도 이 세상의 종말에는 다 부활하고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데에 있다.

현대소설에서 기독교의 출현은 이광수의 「無情」에서도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기

13) 전영택, 「화수분」, 《한국문학百選》, 文豪社, 1965, 192면

독교정신과 무관한 외형적인 소재만 묘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화수분」에서는 그가 목사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관련된 어떠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토속적인 서민의 생활 양식에 부활의 의지를 나타내었다는 것에서 작품은 돋보인다.

이와함께 〈화수분〉이라는 제목에서도 그 의미는 발견된다. “보배의 그릇으로,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두면 새끼를 쳐서 끝이 없이 나온다는 데서 생긴 말”¹⁴⁾인 화수분은 역시 영속성과 발전성을 암시하는 상징인 듯하다.

화수분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초월적 세계로 향하는 필연적인 죽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영택이 만일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니지 않았다면 부활과 재생의 의미는 1920년대 소설에서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2. 김동리의 「무녀도」

김동리는 사머니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작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래서 그의 문학에는 토속적 신앙이나 설화적 모티프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서 그의 소설은 경험의 원형을 찾고 더 나아가 생명과 핏줄제로 환원되는 인간주의를 확대하려 한다.¹⁵⁾

그러나 작품 경향과는 달리 그의 성장은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기독교계 학교인 계성학교, 경신교보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 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작품 저변에는 기독교적 인간상이 많이 심어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의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감득할 수 있는 것은 「사반의 십자가」이지만 기독교 소설을 점검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것은 「무녀도」이다.

14) 국어대사전, 이회승편저, 민중서림.

15) 이재선, 앞의 책, 450면

「무녀도」에서 모화의 죽음은 한국의 토속신앙과 서구의 기독교 사상의 대립에서 토속신앙의 敗退로 상징된다. 물론 모화만이 죽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아들 옥이도 신약성서를 불지르며 예수귀신을 몰아내려는 그 어미의 칼에 찔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어느날 밤 毛火는 “서역 십만리 굶주리던 잡귀신아 썩 물러가라”고 뉘두리를 하며 옥이의 신약성서를 태워버리고 옥이의 뒷등을 칼로 찌른다.¹⁶⁾

한 쪽은 단순히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만 다른 한 쪽은 죽음 이후 교회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열매를 획득한 죽음이다.

이러한 즈음 이 고을에도 조그만 교회당이 서고 전도사가 들어왔다. 그리하여 그것은 바람에 불처럼 온 고을에 뻗었다. 읍내의 교회가 속히 서게 된 것은 옥이의 공로였다는 것이다.¹⁷⁾

모화와 옥이가 죽은 후 교회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의 확산이 암시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의 승리로만 규정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재선은 두 사상의 대립에서 기독교 신앙이 승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짓는다.

모화의 죽음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아들 옥이의 회생에 의해서 모화의 영현을 믿었던 마을에도 기독교가 점차 전파되는 반면에 모화의 영현은 기독교의 비방과 구박으로 점진적으로 소멸의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모화의 죽음은 분명 패배의 비극원리에

16) 김동리, 《무녀도》 올유문화사, 1947, 48면.

17) 김동리, 《무녀도》 올유문화사, 51면

근거하고 있으며…….¹⁸⁾

한편 김병익은 〈異蹟 모티프〉나 〈근친상간의 모티프〉를 들어 기독교의 샤머니즘화¹⁹⁾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김동리는 기독교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샤머니즘으로 수용하여 기독교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존의 결과와 궤도를 달리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모화의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생의 완성의 한 형식으로 파악하는 길이 있다. 죽음은 생의 부정이지만,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은 비로소 생일 수 있다. 다른 한편에 죽음을 거느리지 않는 생은 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생의 완성을 위한 유일 절대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모화의 죽음은 그녀의 생을 완성이라 한다면 「무녀도」를 통해 작가가 추구한 주제는 토속신앙의 파괴와, 기독교 신앙의 승리라는 안이한 상식이 될 수 없다.…… 역사상 인류 문화의 支注가 되어 온 모든 위대한 정신은 한결같이 그런 상식을 초월해 있다.²⁰⁾

위의 근거를 토대로 할 때 《무녀도》가 추구한 색채는 한국의 토속신앙인 샤머니즘에 천착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적 죽음관에 입각한 부활의식에 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화가 패배하고 옥이가 승리했다는 단순한 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옥이의 죽음은 순교의 의미를 가지는 것과,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화가 죽는다. 여기서 옥이의 죽음은 부활의 기능을 가지고 모화의 죽음은 옥이의

18) 이재선, 같은 책, 455면

19) 김병익,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현대문학과 기독교》, 김주연 편, 문학과 지성사, 1984, 66면.

20) 이형기, 「김동리 작품 해설」, 《한국대표문학전집》, 삼중당, 1970, 787면.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3. 박상룡의 「죽음의 한 研究」

박상룡은 이제껏 신화적인 원형을 소설문학 속에 정착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작가로 풀이 된다. 김현은 그의 소설 세계는 和解의 세계라 말하고 그 세계 속에는 죽음마저도 화해의 형태를 취한다고 지적했다.²¹⁾

1975년에 발표한 박상룡의 소설 「죽음의 한 研究」는 한국 현대 소설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는 많은 난해성이 뒤따르고 있다. 간혹 어떤 소설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난해성을 유발시키는 작품이 있는 것에 반해 「죽음의 한 연구」의 난해성은 작자의 의식적인 계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설의 중심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죽음의 상징적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한 연구」는 일종의 철학적 소설이라 불려질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의 플롯과 이야기시간 등에 있어서 불교와 기독교를 포함해 티베트의 바르도 중파의 경전 및 카마수트라 등의 밀교경전의 서사를 작품의 메타구조로서 혹은 하위의 플롯단위로서 차용하고 있다. 전체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도 이들의 문화 외적인 담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때는 각주 형식으로 돌출하여 인용하고 있어 상당히 복합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죽음의 한 연구」는 제목 그대로 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스승에 의해 유리라는 황폐화된 마을로 오게된 한 주인공이 유리로 오는 도중 길에서 한 노승의 죽음을 직면하고 비로소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출발한다. 유리에 들어와 존자승과 외눈박이 중을

21) 김현, 「박상룡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국문학, 1975. 5월.

죽이는 등 이른바 구도적인 살인을 행하고, 또 유리의 오조촌장을 죽여 그로부터 해골을 물려받아 유리의 육조촌장이 되어 유리에 바닷물을 되돌리기 위해 마른 늪에서의 낚시질로 상징되는 형벌을 감내하며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궁구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쪽으로는 자의에 의해 다른 쪽으로는 유리의 법률에 의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 자신의 죽음을 완성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은 그가 성경을 토대로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과, 거기에서 얻어진 죽음과 재생에의 과정을 바르도 종파의 서사들에 기대어 탐구하는 부분이다.

죽음과 재생의 순환에 대한 그의 탐구의 연장으로써 행해지는 기독교의 이야기에 대한 그의 해석은 작품의 〈제 17일〉에서 나타나는 읍내 장로집에서의 그의 설법에서 나타난다. 작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은 원죄와 결부된 에덴동산의 해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은 거의 종교적인 인식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원죄는 모든 생명 있는 것 위에 하나의 시련, 그리고 하나의 통로로서 놓여져 왔다.

2. 원죄는 에덴동산의 실과를 뱀의 꼬임에 빠진 이브가 따서 먹고 다시 아담에게 권하는 순서를 밟거니와, 여기서 뱀과 어머니 자연은 죽음의 한 원형이지만, 한편으로는 신 자신이 인간을 파괴될 성질의 완전치 못한 물질인 흙을 취해서 만든 만큼 이미 그 속에는 죽음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죽음의 결과에서 부활 또는 重生으로 이어주었던 사다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산의 중앙에 심어진 나무도 일종의 우주수(cosmic tree)이기도 한 것이다.

3. 에덴동산의 나무와 예수가 죽을 때의 십자가는 양자 공히 위와 같은 의미에서 생명의 나무이지만, 전자는 생명의 동산에 심어진 나무이며 후자는 해골의 골짜기에 심어진 나무로서 이중성을 갖는 바 이것은 연꽃에 담긴 보석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동물적 윤리가 완벽히 성취된 전형으로서 여기서 죽음은 육신으로 자궁에

들어, 살을 석히고 영으로 싹을 키운 동물적 윤회의 과정이 된다. 따라서 이브는 최초의 여성으로서 하나의 죽음의 장소, 重生의 胎가 된다.

4. 이러한 원죄의 과정은 또한 신의 죽음에의 예비이기도 하며 따라서 기독교의 교리를 빌어 말하면 神의 인육화와 人의 신육화 그리고 한 정신의 우주적 정신으로서의 확산과, 우주 정신의 개이에의 제휴, 한정된 삶의 영생에의 획득과, 영겁의 죽음의 한정된 삶에의 현현으로 해석된다.

5. 따라서 성경은 결국 생명이 멈출 때라야 영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번의 완전한 죽음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책인 것이다.²²⁾

「죽음의 한 研究」에서 주인공이 행하는 이러한 성서의 해석은 주인공이 유리에 들면서부터 스스로 부과된 죽음과 재생의 의미에 대한 궁구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른 늪에서의 고기잡이라는 존장으로서의 형벌과도 연결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고통과 고난의 장소일 때 그 곳에서의 고기잡이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또한 마른 늪에서의 고기잡이는 자기 자신을 낚아 올리는 행위이며, 죽음을 낚아 올리는, 자기의 중심을 찾으려는 고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고기잡이란 하나의 상징을 도출시키는데 고기란 이 소설에서 남근의 상징이며, 양극을 갖는 타원형의 도식으로 나타난다. 양극을 갖는 타원형은 작품 속에서 여러가지로 변용되어서 나타난다.

즉 주인공은 작품의 <제10일>과 <제11일>에서 고기에 대해 사념하는데, 처음에 그는 이른바 양극을 갖는 타원형으로 지칭되는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구속이며 자유와 해탈의 한계를 구획한다는 존재의 비극과 직면하지만, 곧바로 성서의 비유를 토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重生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품의 구조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진다.²³⁾

22) 김경수, 「삶과 죽음에 대한 연금술적 탐색」, 작가세계, 1990. 가을.

23) 김현, 「人神의 고뇌와 방황」, 《죽음의 한 연구》의 해설, 478-479면

- 1) 유리와 읍내는 지리상으로 읍양을 이룬다. 유리가 관념이나 영혼이라면 읍내는 실체나 육체의 표상이다.
- 2) 유리의 육조촌장과 그 곳의 판관인 촛불승과의 師弟관계, 읍내의 장로와 그 곳의판관과의 父子관계.
- 3) 유리의 관념성은 촛불승의 촛불로, 읍내의 육체성은 읍내 교회당의 고양이로 표상된다.
- 4) 유리의 수도녀와 읍내의 장로 손녀는 가장 뚜렷한 양극을 이룬다. 읍내의 장로 손녀는 처녀로서, 수도녀는 창녀로서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그를 감싸는 양극을 이룬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은 어떻게 하나의 합일을 이루게 되는가. 그것은 양극의 죽음을 통해서이다. 물론 그러한 죽음은 통과제의를 치뤄냄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죽음은 읍양의 합일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어 진다.

또한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과제외의 과정이다.

통과제외는 실화 속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것의 양상은 각기 다르지만 구조에 있어서는 흡사하다. 영웅이 되기 위한 혹은 사만이 되기 위한 신내림도 하나의 통과제외에 속한다.

우리의 대표적인 세 개의 신화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를 보면 죽음이란 재생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²⁴⁾

나의 죽음이 너에게 쑥과 마늘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지²⁵⁾

이 말은 그의 스승 五祖촌장이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다. 「쑥과 마늘」은 삼국유

24) 유동식, 《한국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 출판부, 1975, 63면

25) 박상룡, 《죽음의 한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86, 71면

사의 古朝鮮에서 차용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 속에 나온다.

그 때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같은 굴에서 살면서 항상 神雄에게 빌가를 원컨데 化하여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거늘, 한 번은 신웅이 신령스런 쑥 한 줄기와 마늘 20개를 주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하였다.²⁷⁾

단군신화에서 차용된 상징으로서의 〈쑥과 마늘〉은 「죽음의 한 研究」에서도 같은 의미의 기능을 발휘한다.

이 두 개의 상징물은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며, 그 죽음을 통해 웅녀가 사람이 되었듯이 주인공 또한 그의 스승의 죽음을 통해 -주인공에 의한 스승의 살인으로 결국 주인공은 그 죄값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새로운 존재로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준비되어 지는 것이다.

〈쑥과 마늘〉이란 이미지는 죽음이 완성되는 마지막 40일째에 있어서도 주인공의 의식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자 잿속에,
마늘냄새 같은 것이,
쑥냄새 같은 것이,
하나의 갈증으로 있던 것이,
젖을 받고,
채를 헤치고,
꾸무럭 꾸무럭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홍옥빛도 같고

26) 三國遺史, 紀異第一, 古朝鮮의 한 部分.

마늘도 같고,

굼벵이도 같은 살,²⁷⁾

마지막 날의 죽과 마늘은 살을 빛는 즉 재생을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한다.

“유리에서는 ……略…… 사십일을 살기 위해서는 ……略…… 일단은 장례를 치러놓고”라는 소설의 첫 부분에서는 <유리>란 장소가 하나의 통과제의를 위한 죽음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유리>란 곳은 문왕이 귀양살이를 간 곳으로 易이 완성되는 장소이다. 주인공 공은 문왕과 같이 그것을 他意가 아닌 自意로 행하며 나름의 易을 완성시킨다. 주인공의 역이란 문왕의 그것과 같은 것이나 주인공의 유리에서의 易의 완성이란 곧 통과제의를 치뤄 얻어지는 행위의 값으로 치뤄진다.

『죽음의 한 研究』에서 무시될 수 없는 것은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시간관이다. 그것은 뱀에 의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새 마리의 여우가 한 원 안에서, 서로의 꼬리를 물려고 뱀뱀이질을 하거나 두 마리의 용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또한 등굴게 뱀돌이를 하거나, 한 마리의 뱀이 제가 제 꼬리를 삼키느라고 끝없이 뒤집혀지는²⁸⁾

한 마리의 뱀이, 꼬리를 물고 한없이 뱀돌아치는²⁹⁾

이것은 물론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고대의 상상에서 빌어 온 것이다. 뱀은 자기의 허물을 벗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언제나 새롭게 한다는 견해를 갖게끔 한다. 고대 문화 가운데서 뱀은 영원한 시간의 상징으로 되어 있으며, 회랍과 로마 세계의 예술가들은 끝없는 시간의 순환으로 회전하는 曆年을 자기의 꼬리에

27) 박상룡, 같은 책, 466면

28) 박상룡, 같은 책, 231면.

29) 박상룡, 같은 책, 257면.

물고 있는 등그런 모양의 뱀으로서 그것을 나타냈다. 이 상징은 힌두문화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의 神知學者들도 끝이 회귀하는 시간의 순환을 상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인간은 뱀과는 다르다. 인간은 허물을 벗는 힘을 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죽어야만³¹⁾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신화적인 고대의 사고 방식은 종교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한계상황을 알게 되어 영원성을 꿈꾸며 부활의 믿음을 종교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는 껍질을 벗는 대신 죽음을 치뤄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의 한 研究」는 죽음과 재생이라는 인간 존재의 궁극의 신비에 대한 정신적 탐색을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적 담화를 토대로 삼아 소설적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말하자면 자연 자체가 하나의 죽음과 재생의 순환 과정이듯, 그러한 자연의 요소인 흙이라는 불완전한 물질로 빚어져 유한한 삶을 살아가도록 처해진 인간의 삶 또한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밟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불멸한 神肉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내야 할 완전한 죽음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 소설은 추구하고 있다.

IV. 결 론

죽음이란 인간의 한계상황이며, 그것은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종교를 통해 영원성을 꿈꾸게 된다. 인간은 이 시간 속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애를 조명하는 문학에서 영원히 의문으로 남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다. 이 죽음의 유형들을 소설 속에 나타낼 때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역시 종교 의식일 것이다. 한국 현대소설에서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의식이 작품 속에 자리 잡아 주인공의 사고와 행동 양식

30) C. E. 케언즈,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성기 譯, 마음의 샘터사, 1976, 21면

31) C.E. 케언즈, 같은 책, 22면

에 깊은 관련을 하게 되는 시기는 1930년대로 볼 수 있다. 물론 1920년대의 소설에서도 종교의식과 관련된 소설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단지 피상적인 것으로 흘렀을 뿐 그렇게 깊이까지지는 파고 들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 본 세 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수분」은 비록 1920년대의 작품이지만 작품 후반부에 나타나는 화수분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신분이 목사였음에도 종교와 관련된 어떠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특이하다. 그러나 부활과 재생의 기독교의 내세관을 토속적인 서민생활에 심은 것이 그의 작가적 능력을 돋보이게 한다. 둘째 「무녀도」는 그동안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대립에서 기독교의 승리라는 단순한 결과에만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유형이다. 모화의 죽음은 비록 단순한 죽음일지 몰라도 육이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과제의 과정으로 순교의 의미를 가지며 다시 부활의 의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죽음의 한 研究」는 먼저 죽음을 인간의 리얼리티로 본다. 이 작품은 그동안 우리가 외적인 삶의 고통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불교와 기독교의 담화를 빌어 심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40일간이라는 시간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죽음은 모두가 죽음을 통한 재생을 상징한다. 그러나 각각의 유형들은 독자적으로 그것을 나타낸다고 보다는 서로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며, 의미에 있어서도 중첩을 이루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세 편의 소설에 나타난 죽음을 통과제의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심성 속에 잠재되어 있는 生死觀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작품들은 부활과 재생이라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정신사적인 맥락에 관심을 중대해야 할 것이다. 해방과 6.25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죽음의 문제를 50년대 이전의 작품에만 집중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작품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켜야만 이것은 한국 현대소설의 내면적 특성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